

연중 제6주일
(출판물 보급 주일)

기도서 P. 350 C해

제1독서(예 레 17, 5-8)
제2독서(딤펠전 15, 12. 16-20)
복 음(루 가 6, 17. 20-26)

숲 정 이

발행인	김 환 철
인세인	김 봉 희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①2935)

▶ 칼럼

참된 행복

박 병 준 신부

만원버스 안에서였습니다. 70세쯤 되는 노인 한 분이 내가 서 있는 바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가까운 좌석에는 한 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갑자기 얼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 학생 꽤나 피곤해 보였는데, 이제는 불안한 표정까지 짓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를 그러더니 그 학생 벌떡 일어서서는 그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였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불안해하던 얼굴 표정을 찾을 수 없었고, 오히려 옅은 미소를 그 얼굴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행복이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행복에 대한 열원은 인간이라면 너나 할것 없이 모두가 갈망하는 최상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행복을 여러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돈에서, 쾌락에서, 권력과 명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류역사는 행복이 이런 그 어느곳에도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부귀영화 속에서도 행복을 고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도 행복을 원하면서도 대부분은 그 행복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중에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러한 인간이 인간보다 못한 피조물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기에 계속적인 실패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를 있게 해주신 그분 하느님에게서만 풍부히 넘치게 찾아 얻을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느님은 우리를 행복에 초대해 주셨고, 고맙게도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행복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 의 것이다"(루가 6, 20).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질적인 가난만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느님앞에 서 있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이들, 하느님께 순명하고, 자기 스스로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의식 하는 겸손한 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느님 으로부터 교유되고 그분의 구원의 날을 눈물을 흘리며, 학수고대하는 자들 입니다. 그들은 '원수' (?)에게 불의 하게 소송당하고 누명쓰고 박해받으며, 불의하게 재산을 탈취당하고 내어쫓김을 받은 자들 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참을 좋아하고 즐기거나 단순히 불행안에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시는 부유함과 행복함을 갈망하는 자들, 하느님의 정의에 굽주리고 목마른 자들 입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도록 준비된 자들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제일 먼저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참 행복은 부귀영화에 있지 않고 우리가 가난한 자들이 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버스안에서 자신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노인에게 좌석을 양보하는 가난에서 조그만 행복에 젖을 수 있었던가 봅니다. <창인동 천주교회 보좌신부>



하느님과 화해하자

사순절이 시작된다. 사순절은 「희생과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할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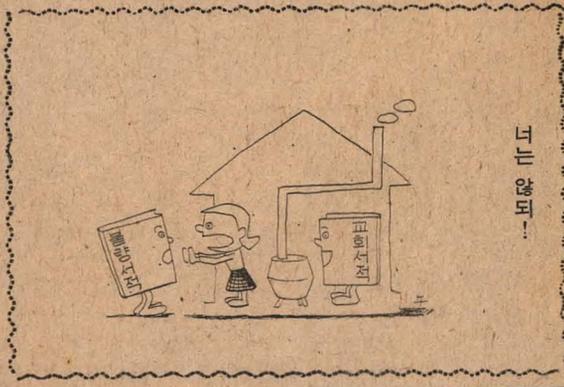
너무나 어지럽게 돌아가는 세상인지라 우리 자신을 되 돌아 볼 필요가 더욱 크다. 정치적인 회오리 바람, 사회적인 세태의 문제점들이 너무나 크다. 가끔가다 시대를 벌행하는 정치적인 발언이 있고, 민족의 의지를 외면하는 과열치한 일들도 눈에 뜨인다. 세상에 돈을 어떻게 벌었으면 수십만원씩 주고 과외를 시킬 수 있는가? 현직 교사들을 월 300만원의 보수와 승용차를 준다는 조건으로 스카우트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들리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소리를 듣다보면 맥이 빠지기까지 한다. 이렇가지고야 어떻게 삶의 보람을 지켜갈 수 있겠는가?

나의 위치는, 나의 처지는 어떠한가? 부정과 불의의 흙탕물에 휩쓸려 가고 있지는 않은가? 남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그 길을 뒤쫓지 않으면 뒤처지니까 그길을 별수없이 걷고 있다고 자위하지나 않는가? 지금은 바로 「하느님과 화해」해야 할 때이다. (고린토 후서5, 20) 하느님과 나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자.

또한 지금은 「자선과 기도」를 해야 할 때이다. (마태오 6, 1-6) 배고르고 헐벗고 아픈 형제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 어떻게 그들을 다 보살필 수 있느냐고 묻지 말자. 조그마한 정성을 모우면 큰 힘이 된다. 있는대로 가진대로 정성을 모아보자. 그리고 기도하자. 자신을 위해서, 아무도 기억하는이 없는 형제들을 위해서, 부정과 불의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바른길로 인도해야 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의 희생과 기도가 절실하게 봉헌될 때,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주신 하느님께서 들어 주신다.

숲 정 이 산책



□ 출판물 보급주일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편지

박 헬레나 수녀

“편지요!”

어디서 왔을까? 누구한테서? 무슨 일일까? 기쁜 소식을 보는 순간, “야! 신난다”며 인간은 누구나 기쁜 소식 앞에 소리를 지르며 기뻐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출판물 보급주일입니다. 관례적인 보급주일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제검토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교회내의 서적들은 모두가 하느님의 말씀이 담긴 편지들입니다. 오늘은 하느님의 편지를 받아 보는 우리들의 자세를 생각하고 반성해 보았으면 합니다.

교회의 출판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너무나 쉽게 던지는 한마디! —“그저 그래.” “시시해.” “지루하고 재미도 없어.” 등등... 이러한 무책임한 말들을 들을때 참으로 마음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보고 또 보고 소중히 간직할 다음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고 자랑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쁜소식 중의 기쁜 소식인 하느님의 편지를 받았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다지도 무심하게 취급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새롭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다르듯이 교회의 출판물도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식물도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기우릴때 그 열매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고 받아 드려야 하는 교회의 출판물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또 느낀것을 다른이에게 전할때 점점 더 성장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인간 지식을 넓히기 위해 학년별로 많은 교과서와 참고서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학교에 다니는 교회의 자녀 여러분! 우리 인생 삶의 교과서인 하느님의 말씀이 담긴 편지(성서)와 교회의 출판물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를 다 읽지 않고 하느님 앞에 간다면 우리는 무슨 말로 변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자문해봅시다. 옛 성인들도 하느님의 말씀으로 영양분을 섭취하며 살아 가셨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물질도 쏟아져 나오는 출판물들을 분별력있게 받아들여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많은 기술자, 제작자, 편집인들이 오늘날의 대중매체인 출판물에 가톨릭의 창안을 점점 증가시키고, 크리스찬적인 참된 가치를 담아내서 이 세상의 악의 소리와 오류를 눌러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내적세신의 해를 맞아,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는 매스컴 수단을 잘 받아들여 우리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린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다짐해야겠습니다.

(성바로 여자수도회)

희 소 식

우리나라에서 수입해 오던 칠면조가 가축, 부업, 화초식품용으로써 대량 생산되어 획기적인 선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의 연락 바랍니다.

특 징

노천사육이 가능하며 질병이 없으며 닭에 비해 성장율이 빠르며 초식동물로써 사료비가 40% 절감할 수 있음. 전북 완주군 상광면 죽림리 내정부락

칠면조 사육장 요 식

□ 단상 ⑤

눈물의 맛

최 규 환(알베르토)

눈물은 걱정에서 생긴다. 눈물이 거친 후에는 걱정은 사라진다. 그리고 정지상태에 놓여지게 되어 고요함을 가지게 된다. 이 정지상태의 고요함에는 어떤 달콤한 맛이 있어. 이 달콤한 맛은 더욱 더 스며든다. —이는 감상적인 미(美)이기 때문이다. 감상적인 맛은 이렇게 스며들어 더욱 깊어가고 고요한 정지상태는 지속된다.

피데는 말하기를 눈물속에서 밥을 먹어보지 못하고, 훌쩍훌쩍 울면서 빌면서 한밤을 세워보지 못한 사람은 진중하신 하늘의 힘을 모른다고 하였다. 진정한 눈물을 알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알지 못한다. 인생의 맛을 모른다. 그리고 진중하신 하느님의 힘을 알지 못한다. <신태인 사도회장>

* 사제 양성 후원을 위해

정성껏 봉헌합시다!

우리 교구는 해마다 사순절에 사제양성 후원을 위해 봉헌해왔다.

교구 사제양성 후원회에서는 금년에도 저금통을 마련하여 각 가정에 나누어 준다. 성합(성체를 담아두는 그릇) 비슷한 모양의 저금통을 일부러 준비했다.

사제양성 후원사업은 사제를 길러내는 일과 은퇴사제들을 돕는 일이다. 이 일이야말로 온 교구가 한마음으로 정성을 모아야 할 일이다.

<희생과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할 이 사순절동안 교홀리게 어린이이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끼고 쪼개어 봉헌해야겠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소(聖召)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해 보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성소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 동 정(動靜) *

원평본당 사도회 감사로 수고하던 장두원(안드레아)형제는 봉남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군산중학교로 전보되어 군산 오동동 본당으로 교직을 옮겼다.

78년도에 영세하여 교회에 뜨겁게 헌신했던 장형제는 “신앙의 고향”을 떠난다”며 못내 아쉬워했다. 하지만 우리는 지역을 초월하는 한 형제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장형제의 앞날을 축하하며 그의 손을 놓았다.

그러나 군산중학교가 화재를 입어 교사 신축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지니고 있기에 그를 위해 두손을 모운다. 부디 신앙안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기쁘게 생활하기를 빈다. 형제들의 기도도 부탁드려 본다. (院坪)

□ 개업안내

숙녀복·악세사리·섬서 및 성물 일절

조 약 들

진안사거리(현태탕 옆)

양 가 타 리 나



80년도의 기도

—성전 추진의 해에 부쳐—

김 태 윤 신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다사다난했던 70년대도 이 몸 건강히 보호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70년대를 통해서 주님은 자비의 천주지요, 정의의 심판관이심을 더욱 굳게 깨달았나이다.

이제 주앞에 겸손되어 간청하오니 우리의 비천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본당이 본당으로 새로운 발돋움을 한지 벌써 만2년이 지났습니다. 첫 해엔 주님께 대한 찬미와 감사가 바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생활로 이루어져야 함을 깨닫게 된 <전례제신의 해>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가를 부르며 주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엔 우리 신자들이 모두 자신과 가정을 성화하고 이웃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노력한 <전교의 해>였지요. 주님! 올해는 우리의 숙원인 성전을 마련하기 위한 <성전 추진의 해>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당신의 거룩한 집을 마련하고자 굳게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무력한 저희들이기에 이렇게 주님께 더욱 애달픈 기도를 드리게 되나 봅니다.

주님! 더구나 80년도에 들어서서 환율과 금리의 인상, 그리고 유프파동으로 우리의 생활이 매우 시달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우리의 한 뭉클 주님의 성전, 우리의 성전을 위해 착실히 준비해 보렵니다. 우리는 없는 자요, 가난한 자들이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성껏 봉헌하렵니다. 우리의 귀중한 한 뭉클 빼어서라도, 우리의 뼈를 깎아서라도 당신께 봉헌하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지난번 성전 추진위원회 첫모임이 있었을 때 당신의 사랑스런 자녀들의 굳은 각오와 열의를 저버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시작이 반'이라는 옛말을 생각해 봅니다. 시작하고 노력하면 당신께서 결실을 맺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시작해 보렵니다.

만군의 주님! 이 거룩한 집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소서. 그리고 이 지역의 모든 이에게도 당신을 알아 당신께 돌아올 수 있는 빛을 비추주소서.

“만군의 주님이여! 계시는 곳 그 얼마나 사랑하오신고...!” (시편 83, 1)
 <원형 본당 주임신부>

* 지금은 사순절(四旬節)

예수 부활 대축일을 앞두고, <제의 수요일...금요일은 2월 20일>부터 예수 부활 대축일 전야(前夜)미사까지의 6주간 반(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한다. 이 40일은 「노아의 홍수」(창세기 7, 17), 「엘리아의 단식」(열왕기 상 19, 8), 「시나이 산에서의 모세의 단식」(출애굽기 34, 28), 「예수 그리스도의 황야에서의 단식」(마태오 4, 2) 등 40일과, 이스라엘 백성이 황야를 헤매 40년을 회상하게 한다.

이 기간은 특히 <회개와 사랑의 실천>을 결들임으로써 바스카의 축제를 준비하는 시기이다.

요심이 (342) 김병오



□여성 여러분에게
 뜻을 선사합니다□
송옥의 상실
 최춘자(로사리아)
 (이시계점연)
 전화 ⑥ 6219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주택 2-8548)

표구, 서화, 병풍, 수예, 방석, 보로
문화양행
 오 증 원(아오스당)
 팔달로 주택은행 맞은편 ③3170
 ☆교우님들 자주 들리세요

가톨릭 방송안내 및
 원고모집

1. 사색의 오솔길

- ① 방송국 및 방송시간
 서해방송 밤12시 15분
- ② 담당: 나궁열 신부
- ③ 원고내용: 젊은이들의 생활교향과 그들에게 하고싶은 이야기
 원고지 5매
- ④ 연락처: 전주 노동동성당

2. 생활종교

- ① 방송국 및 방송시간
 서해방송 주일 아침 7시 40분
 매월 1회
- ② 담당: 김환철 부주교
- ③ 원고내용: 생활속에서 신앙체험
 담, 원고지 12매
- ④ 연락처: 전주교구청

※ 방송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불함.

*교우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시보당 금방
 (금·은·보석·각국 시계)
 주 이 창 수(바오로)
 전주 남문옆
 전화 ⑥ 8188 (자 ③0369)

□정확 미용학원 학생모집 □
윤경미장원
 (신부화장 및 드레스)
 이리시 창인동 구역전 앞
 최윤경 (유리안나)
 전 화: ⑥ 8653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단식과 금육...20일(제의 수요일) 불우한 이웃을 생각합시다
- 1. 가톨릭 농민회 피정 및 총회...2월 19일 오후 1시~20일 정오까지, 가톨릭 센터에서 참가비-1인당 1,500원, 대상-1개분회에서 3명, 연합회임원, 역대임원, 분회설립 가능지역의 회원
- 2. 2차 사도회 임원 피정...22일<금> 오후 2시~23일<토> 가톨릭 센터에서
 - ① 접수시간...22일 오후 1시30분~2시(※ 2시 정각에 시작)
 - ② 1인당 참가비...전주시내(4천원), 군산·이리시내(3천5백원), 금산·무주·장계·장수·한들(2천5백원) 순창·원평(2천원), 기타(3천원)
- 3. 레지오 마리에 표미시움 월례회...17일 오후 2시 전통성당에서
- 군인들을 위한 목주성금...화산 목주 150개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정태현
 보좌 신부 성태현
 사도 회장 김병구

- 1. 성모회 월례회: 17일<일> 공식미사 후, 성당
- 2. 가정방문 일정: 금암동 26일 오후 2시부터 구역장, 반장 수고하시겠습니다
- 3. 20일 재의 수요일입니다(단식제와 금육제) 가정에 있는 성자가지를 성당에 가져오세요
- 4. 사순절동안 미사시간 변경
매주 토요일 특전미사 시간 7시30분을 7시로 변경(23일, 3월1일, 15일, 22일, 29일)
- 5. 사순절 신앙감파: 제1차-23일<토> 오후 8시 성당
- 6. 청년성가대 나환자촌 방문: 24일<일> 오후 1시 성당에 집합
- 7. 예비자 교리: 24일부터 시작
학생: 토-오후 6시, 일-오전 9시미사 후
일반: 목-오전 10시30분 또는 오후 8시
일-오전 10시30분 미사후, 노인: 수-오전 10시
- 지난주 봉헌금: 311, 215원

- 4. 사순절 저금통 반장님들 나눠주시기 바람, 18일까지
- 5. 대학생회: 매주 수요일 오후 6시30분
- 6. 중·고학생회: 주일 9시미사에 꼭 참여합시다
- 7. 복자 신용조합 정기총회: 24일(조합원은 도장 가지고 나오세요)
- 8. 봉헌금(79년분) 미납자 속히 완납 바람
- 9. 오늘은 출판물 보급주일: 특별헌금 있음
- 지난주 봉헌금: 275, 035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형수

- 1. 재의 수요일: 2월 20일 단식과 금육제 지킵시다
- 2. 수요기도회: 2월 20일 오후 7시30분 재의 예식과 기도회 있음
- 3. 울뜨레아 회합: 2월 26일 오후 8시(꾸르실리스타 전원 참석 요망)
- 4. 하느님께 약속한 신축금을 완납합시다
- 5. 수녀원 비품마련에 다같이 협조합시다
- 6. 감사: 제대 꽃기증 송영완(수산나) 감사합니다
- 7. 제2차 사도회 임원 피정: 22~23일 지난번 빠진 임원은 이번 피정에 참석합시다
- 8. 오늘은 출판물 보급주일: 특별헌금 있음
- 지난주 봉헌금: 124, 517원

(노송동)

전화 ⑦7032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나준영
 사도 회장 박준근

- 1. 사도회 임원, 교육위원 연석회의: 오늘 저녁미사 후
- 2. 제1차 분당 1일피정: 24일<일> 14시~21시까지 참가대상: 20세~65세이하의 남·녀로서 30명 준비물: 성경, 묵주, 성가집(필기 도구와 석식은 분당에서 제공함)
- 3. 금주의 성경읽기: 금주-마르코 복음 전체와 구약의 요경 1, 토비트 전체, 지난주-출애굽기 전체
- 4. 주일학교 졸업식: 다음주 어린이미사중에
- 5. 감사합니다: 불우이웃 돕기에 협조해 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영빈씨가 백미 4두, 그의 많은 분들이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회사하셨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175, 530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 1. 성모회 월례회: 2월 17일 공식미사 후
- 2. 금육과 단식: 2월 20일 재의 수요일
- 3. 제2차 사도회 임원 피정: 2월 22일
- 4. 주일학교 아동 졸업식: 2월 23일
- 5. 요양회 월례회: 2월 24일
- 6. 신축기금: 오찬식(5천원), 익명(2만원), ○○신부님 10만원(전축비)
- 7. 예비자교리: 매주 화·수 7시30분 주일 공식미사후
- 지난주 봉헌금: 181, 00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조정오
 사도 회장 양상열

- 1. 주일학교 개학: 오늘부터 귀염둥이들을 교리반으로 보내주세요(교리 2시, 미사 3시)
- 2. 애령회에 관심을 갖읍시다. 회장-전종근(야고버), 부회장-홍정애(메레사), 총무-정경신(마르코), 수고하시겠습니다
- 3. 덕진구역장: ①유정순, ②제연희, ③임옥순
반장: ①최영자, ②정영수, ③이주연, ④신연숙, ⑤최부남, ⑥이순분, ⑦박영진, ⑧김복실, ⑨강복례, ⑩박정림, ⑪조윤수, ⑫박기순
금암구역장: ①박춘자, ②임길자
반장: ①강영례, ②이덕례, ③박춘자, ④최덕례, ⑤서정옥, ⑥변의순
- 4. 감사: 이성환(파오르), 김용식(그레고리오)
- 5. 사순절을 뜻깊게 보냅니다: 2월20일부터 4월4일까지
- 지난주 봉헌금: 196, 58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병엽
 보좌 신부 김기송
 사도 회장 유성홍

- 1. 사도회: 공식미사 후(사도임원·신심단체장·동장)
- 2. 기우회(棋友會)을 조직코져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람
- 3. 어머니 성가대장(이벨리사벳) 모친 사망 기도부탁...
- 4. 어머니 성가대 임원개편: 대장-이길용(엘리사벳), 부대장-윤림자(말가리다), 총무-백홍자(안나), 회계-현종순(메레사)
- 5. 주일학교 졸업식 및 종결식: 2월 24일 오후 2시미사 오전 9시미사 없음
- 6.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17일 공식미사 후(교무실)
- 7. 대학생회 모임: 2월 19일 오후 2시, 사제관 2층
- 8. 각 가정마다 성자가지를 가져오세요(19일까지)
- 지난주 봉헌금: 316, 272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채수현

- 1. 오늘은 출판물 보급주일입니다. 모든 신자를 성경, 성가, 기도서 지참합시다
- 2. 다음 수요일 재의 수요일입니다(단식과 금육의 날)
- 3. 23일<토> 아동미사 후 어린이 교리반 졸업식 있음
- 4. 어린이 교리반 개학: 3월 1일
- 5. 사도회 임원 피정(제2차): 22~23일
- 지난주 봉헌금: 78, 255원 교무금: 45, 200원 어린이헌금: 1, 655원

(복자)

전화 ⑤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박성호
 사도 회장 조성호

- 1. 재의 수요일: 20일<수> 단식, 금육
- 2. 제2차 사도회 임원 피정: 22~23일
- 3. 사도회 월례회: 22일<금> 저녁미사 후 사도회, 상임위원, 감사, 고문 참석 바람